



국토교통부

보도설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3. 2. 14(화)		
담당 부서	토지정책관	책임자	단 장 김성호 (044-201-3589)
	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담당자	팀 장 박태진 (044-201-3606)
		사무관	허예원 (044-201-3595)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(한국일보, 2.14) >

◆ “동시진행 근절” 정부 비웃듯...“단속 심하니 혜택 더” 갱통 중개 계속

□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·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. (「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」, 2.2)

○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*('23.1~6월)을 운영 중이며,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.

*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(한국인터넷광고재단) 누리집(budongsanwatch.kr)

<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>



- 아울러 '22.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*를 조사하고 있으며,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.

* '23.2.14 현재 기준, 총 156건 광고(위반의심사업자 140개) 적발

- 또한 정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‘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’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,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「공인중개사법」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,
-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·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아울러 공인중개사,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‘동시진행’ 주택에 대한 중개자를 모집하는 분양 관련 업자 전용 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불법정보 처리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.

- 앞으로 정부는 6개월간 연장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('23.1.25~7.24)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, 검찰청·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토지정책관	책임자	단 장	김성호 (044-201-3589)
		담당자	팀 장	박태진 (044-201-3606)
	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	사무관	허예원 (044-201-3595)
	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 (044-201-3434)
		담당자	사무관	서태진 (044-201-3412)